

‘놀면 뭐하니’ 싹쓰리 데뷔곡 선정 → ‘여름안에서’ 뮤비 예고

토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 11.3% 기록

싹쓰리 · 광희, 90년대 감성 소환 비주얼

‘놀면 뭐하니?’ 싹쓰리 유재석, 이효리, 비(정지훈)가 2차 블라인드를 통해 데뷔곡 후보를 선정했다.

싹쓰리의 취향을 저격한 매력적인 후보 중 과연 어떤 곡이 데뷔곡으로 낙점될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는 싹쓰리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이 2차 블라인드 데뷔곡 선정을 통해 타이틀곡 후보를 추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는 2부 기준 전국 9.7%, 수도권 10.1%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20.9 시청률(수도권 기준)은 1부 4.9%, 2부 7.4%를 기록하며 토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1분은 싹쓰리가 시청자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통해 ‘여름안에서’ 싹쓰리 ver(with 수발놈 광희) 뮤직비디오 예고 장면으로 11.3%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울여름을 강타할 대형 신인 혼성 댄스 그룹 싹쓰리를 향한 기대감이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싹쓰리가 울여름 시청자들과 함께 부를 데뷔곡 후보곡이 공개됐다.

싹쓰리는 90년대 히트곡 메이커부터 지파(박명수) 등 여러 작곡가가 보낸 노래 중 그룹과 가장 어울리는 4곡을 데뷔곡 후보로 선정했다.

밝은데 아련한 감성을 자극하는 ‘Cool한 42’, 코드쿤스트와 이효리가 함께한 ‘Clean Up’, 세련된 브라스가 인상적인 ‘여름을 틀어줘’ 그리고 TOP100기 유두래곤의 마음을 뺏은 제다G(제주대+린다G) 작사 참여 곡 ‘다시 여름 바닷

가’까지, 싹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곡을 낙점할지, 이들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이에 앞서 제주대 본캐 이효리는 싹쓰리 곡 작업을 위해 서울 출근길에 올랐다. ‘수발놈’ 광희는 이효리의 출근길을 동행했다.

이효리는 광희에게 “네가 간헐적 천재 같다고 하더라”고 애능감을 칭찬했다.

이효리와 광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추억 토크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감성 발라드 앤의 ‘혼자하는 사랑’을 최애곡으로 꼽으며 함께 노래를 불러 시선을 끌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코드쿤스트의 작업실. 이효리는 코드쿤스트가 준비한 곡을 듣더니, 광희에게 즉석에서 인트로 부분 랩을 부탁했다.

광희에 웨스트로 급 변신한 광희는 날 것 느낌 가득한 가사와 래핑으로 이효리와 코드쿤스트를 박장대소하게 했다.

유두래곤은 뮤직과 밝고 경쾌한 장르 댄스곡부터 아련하고 비장한 단조 느낌 노래 등을 들어보며 블라인드 테스트에 인할 최종 후보곡 ‘Sad Summer’을 선정했고, 비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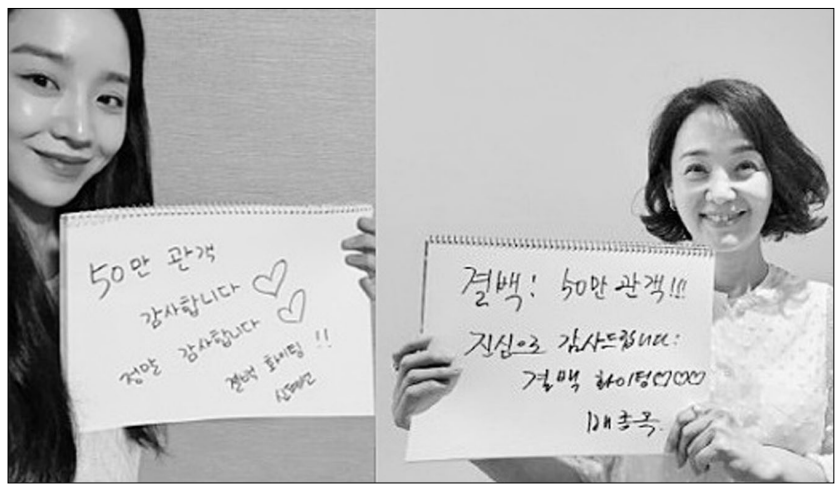
은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레게송 ‘신난다’를 준비했다. 다시 모인 싹쓰리는 근황을 나누며 ‘비룡 몰이’에 토크해 웃음을 안겼다. 비룡은 형, 누나의 애정 어린 공격

에 “어떻게든 북아 먹으려고 찌꺼기 내놓고 이러면 기자회견 할 거야”라며 앙탈을 드러내 폭소를 안겼다. 또 섭사비, 삼룡이 등 비룡을 위협하는 부캐 등장이 예고돼 웃음

을 자아냈다. 싹쓰리는 본격적으로 2차 블라인드 곡 선정에 돌입했다. 상큼한 느낌인 ‘아 유 레디?’를 비롯해 신나는 EDM사운드의 ‘섬머타요’ 등이 공개됐다.

‘결백’ 개봉 11일만에 50만 돌파...신혜선 · 배종옥 웃었다

직접 쓴 손편지 인증샷 공개...“‘결백’ 화이팅”



영화 ‘결백’ (감독 박상현)이 개봉 11일 만에 50만 관객을 돌파했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결백’은 전날 919개 스크린에서 8만141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관객수는 50만

507명이다. 지난 10일 개봉한 ‘결백’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왔다. 지난 18일과 19일 신작 ‘사라진 시간’에 1위 자리를 내줬으나 전날 1위를 재탈환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결백’은 신종 코로나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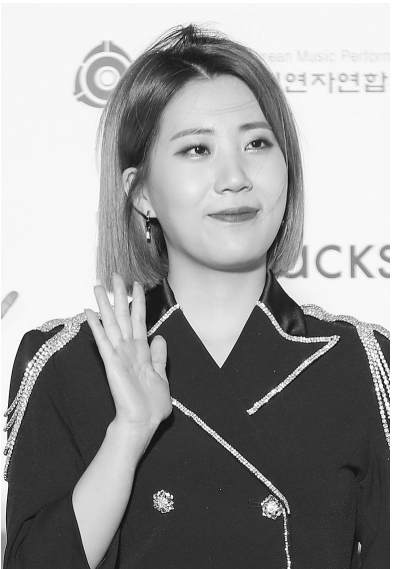
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사태 속에서 3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50만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 신화 탄을 쏘아 올렸다.

‘결백’은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막걸리 농약 살인사건, 기억을 잃은 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 화자(배종옥 분)의 결백을 밝히려는 변호사 정인(신혜선 분)이 추시장(허준호 분)과 마을 사람들이 숨겨려 한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가는 무죄 입증 추적극.

이에 ‘결백’ 측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5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을 기념, 주역 신혜선과 배종옥의 인증샷을 공개했다. 50만을 상징하는 포즈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백’ 파이팅!” “결백! 50만 관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백’ 파이팅!”이라고 직접 쓴 손편지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우지윤, 안지영 ‘저격 의혹’ 부인... “지난해 작업했던 곡”



불뺑간사춘기 탈퇴 후 발표한 곡 때문에 ‘안지영 저격 의혹’에 휩싸인 우지윤이 직접 이에 대

한 입장을 전했다.

우지윤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신의 곡 ‘도도’를 작업한 파일 내역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도도’는 2019년도에 작업해서 그 중 일부를 게시했었다”라며 “남은 일부가 메인으로 됐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우지윤은 “‘섬’ 역시 작년 여름에 가이드 1절을 완성시킨 곡”이라며 “지금과 inst 이외에 다른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우지윤은 낯선 아이라는 활동명으로 신곡 ‘도도’와 ‘섬’을 발표했다. 그런데 ‘도도’의 가사에 ‘넌 날 밀어 버리곤 세트 포인트(Set point) 그대로 가로채’ ‘악몽이라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기적이라 내가’ 내

일이 널 위해 온다며 자기합리화를 꽃 피워, 걱정이야 난 너’라는 구절이 포함됐다. 이에 우지윤이 ‘도도’의 가사를 통해 안지영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섬’에는 ‘빈칸에 채우든지 말든지’란 노랫말이 담겼는데, 우지윤 탈퇴 후 불뺑간 사춘기가 지난 5월 처음 발표된 음반의 수록곡 중 한 곡의 제목이 바로 ‘빈칸을 채워주세요’였다는 점에서 우지윤의 안지영 저격설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우지윤은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직접 해당 곡이 지난 4월 불뺑간사춘기 탈퇴 전에 이미 작업했던 곡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저격설’을 일축했다.

이유비 ‘김우성과 허위 열애설’로 고통 준 악플러들 고소

“용서 · 선처 없어”

배우 이유비 측이 허위 열애설로 고통을 준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미 사실무근이라 밝힌 열애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고소,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유비 소속사 와이블룸 엔터테인먼트는 폰소문(루머) 및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위반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이유비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도배된 악성 댓글로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

약 2개월 전부터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인 밴드 더로즈 김우성과의 허위 열애설을 퍼뜨리는 악성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한 것. 여기에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성 댓글과 성적인 모욕까지 게시되자 이유비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앞서 이유비와 김우성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애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각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의 배경이 프랑스 파리라는 점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열애설이 확산됐었지만,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지인 사이일 뿐이었다.

당시 이유비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지인 사이일 뿐”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해프닝으로 끝난 열애설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차단하려 했지만 워낙 여러 아이다로 댓글이 도배되는 상황이라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 이 같이 결심했고, 용서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트 코베인 ‘원손잡이 기타’ 72억원에 팔렸다

미국 록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썼던 기타가 20일(현지시간) 경매에서 600만달러(72억원)에 낙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기타’라는 기록을 썼다. 이 기타는 코베인이 1993년 뉴욕 ‘MTV 언플러그드’ 공연에서 쓴 마틴 D-18E 모델이다. 1959년에 제조됐으며, 원손잡이

인 코베인을 위해 개조됐다. 기타 케이스 안에는 쓰다 남은 기타줄과 피크 3개, 작은 마리화나 주머니 등이 들어있다.

음악매체 톨링스톤스는 이 기타의 경매가 20일 100만달러에서 시작해 일곱 차례의 호가 끝에 600만달러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기

타는 핑크 플로이드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길모어가 사용했던 펜더사의 블랙 스트라토캐스터로, 395만달러(47억원)에 판매된 바 있다.

코베인은 MTV 언플러그드 공연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93년 11월 27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븐틴, 오늘 오후 6시 미니 7집 ‘헝가래’ 발매

그룹 세븐틴이 타이틀곡 ‘레프트 앤 라이트’(Left & Right) 음원 일부 선공개로 컴백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세븐틴은 21일 오후 6시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미니 7집 ‘헝가래’의 타이틀곡 ‘레프트 앤 라이트’ 음원의 일부를 24시간 동안 선공개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세븐틴은 지난 20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이틀곡 음원의 일부가

틱톡에 선공개되고 ‘레프트 앤 라이트’ 챌린지도 진행된다고 알리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틱톡을 통해서만 약 30초 가량의 음원이 선공개된다고 전해져 새 앨범 발매를 기다리는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디오 플랫폼에 타이틀곡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더욱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21일 자정 세븐틴이 새 앨범의 유닛 오피셜 포스터

최초로 공개했다. 싱그러운 분위기의 힙합 유닛을 시작으로 청춘의 정석을 보여준 퍼포먼스 유닛, 훈훈한 소년미를 드러낸 보컬 유닛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보는 이들로 하여금 설렘을 유발하기도 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22일 오후 6시 미니 7집 ‘헝가래’를 발매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전 세계 동시 방송되는 Mnet과 M2 디지털 채널을 통해 ‘컴백쇼’를 진행한다.

김재승, 오늘 前 国대 농구선수 정미라 딸과 결혼

배우 김재승(37)이 결혼한다. 김재승은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에서 승무원 연인과 웨딩마치를 올린다.

예비 신부는 1살 연하의 모국적 항공사 승무원 김모씨로 1년여 교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김씨는 대한민국 농구스타 박찬숙과 함께 70~80년대 여자 농구계를 풍미했던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이자 현 한국중고농구연맹 부회장이자 MBC 농구해설위원 정미라 씨 딸이다.

이날 결혼식 축가는 뮤지컬배우 허규, 사회는 조성하가 맡을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 19일 “두 사람은 혼자보다 둘이 좋은 건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이웃과

나누며 감사함을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길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재승은 2004년 MBC ‘논스톱4’로 데뷔했다. 영화 ‘귀집’ ‘드라마 ‘떼루아’ (2008) ‘찬란한 유산’ (2009) ‘넌밤에 헤딩’ (2009) ‘마이 시크릿 호텔’ (2014) ‘가족의 비밀’ (2014) ‘엄마’ (201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017)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